

# 교과서업계에 '군림'하는 4대 출판사

## 고등학교 2종 교과서 1차 심사 과반수 휩쓸어

오는 1990학년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2종(검인정) 교과서 1차 심사결과, 동아출판사·교학사·금성교과서·지학사 등 4대 교과서 출판사가 전체 합격종수의 과반수를 휩쓸 것으로 밝혀져 출판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 동아·교학·금성·지학사가 137종 차지

인문·실업계를 통틀어 총 38개 과목에 걸쳐 실시된 이번 검정에서는 동아출판사가 28개 과목에 43종(계열 학연사 6종 포함)이 합격,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교학사가 29개 과목에 38종(교학연구사 5종 포함), 금성교과서가 22개 과목에 29종, 지학사가 22개 과목에 27종을 각각 합격시켜 이들 4개사가 전체 합격종수(273종)의 50.18%(137종)를 독과점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들 4개 출판사는 88년 3월 중학교 2종 교과서 검정에도 전체 합격종수(45종)의 71%(32종)를 휩쓸었다.

지난 2월1일에 마감된 이번 검정출원에는 총 513종이 신청, 평균 1.8대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합격종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중학교 교과서(과목당 5종 이내)와는 달리 과목당 8종 이내로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교과서 중에서도 해설서·참고서·카세트 등 2차적 저작물에 의한 副次權이 확보되어 '달려 박스'로 까지 통하는 영어·일반수학·수학 I·수학 II 등 핵심과목의 경우, 교학사가 4과목에 모두 합격한데 비해 동아출판사

는 영어(2종)·수학 I(2종)·수학 II 등 3과목에 5종이 합격했다. 반면 금성교과서는 일반수학 2종, 지학사는 영어 1개 과목에만 합격해 핵심과목에서 열세를 보였다.

이들 4개 핵심과목에 합격한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영어(8종)=교학사, 동아출판사(2), 지학사, 웅진출판사(2), 형설출판사, 하나출판사

▲일반수학(8종)=교학사, 금성교과서(2), 웅진출판사, 하나출판사, 민문고, 천재교육사, 영재교육사

▲수학 I(8종)=교학사, 동아출판사(2), 웅진출판사, 심화서적, 능력개발사, 태림출판사, 청문각

▲수학 II(8종)=교학사, 동아출판사, 하나출판사, 민문고, 천재교육사, 청문각, 문호사, 정법문화사

### 웅진출판사, 핵심과목서 두각

이번 검정에 합격한 출판사는 총 48개사. 그중 3종 이상 합격사가 30개사에 이르고 있어, "작년 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는 중견출판사들이 많이 탈락한데 비해 이번에는 중견출판사들이 비교적 고르게 진출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한국2종교과서협회 이종환 이사장의 말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웅진출판사(대표 윤석근)와 하나출판사(대표 이기석)의 괄목할

진출이다. 교과서업계에서는 뉴페이스인 웅진출판사는 창립(83년) 5년만에 연간 외형매출액 톱랭킹에 올라 출판계 안팎의 주목을 집중시켜 왔는데, 이번 검정에서도 영어(2종)·일반수학·수학 I 과 한문 등 4과목에 5종이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학습참고서 전문인 하나출판사(77년 창립)도 영어·일반수학·수학 II 등 핵심과목에만 4종이 합격,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 대구 상문사가 주로 상업교과서 분야에서 6종을 합격시켜, 지방출판사로서는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냈다. 기술도서 전문출판사로서는 성안당(대표 이종춘)이 물리·기술(2종)·공업·상업부기·한글타자 등 5과목에 6종을 합격시켜 돋보인다. 반면 을유문화사(불어)·계몽사(생물)·법문사(중국어) 등 전통있는 명문출판사들이 1종씩을 내놓아 애교있는 화제를 낳고 있다.

### 저자 24%가 서울대 교수

한편 교과서 저자의 경우, 서울대 교수가 67명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하고, 고려대·경북대·국민대·외국어대 교수가 각 8명, 서울교대·연세대 교수가 각 7명, 이화여대·한국교원대 교수가 각 6명, 전북대·충남대·성균관대 교수가 각 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대 교수들은 불어(2종)·스페인어(2종)·중국어(2종)·일본어(2종) 등 제2외국어 교과

서 중 8종을 석권해 '외국어통'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밖에 중·고교 교사 중에서는 서울여상이 6명, 선린상고가 3명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교직자 외로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이 4명이다.

동아·교학·금성·지학사를 제외한 각 출판사별 합격종수는 다음과 같다.

▲문호사=11종

▲민문고=8종

▲보진재=7종

▲형설출판사, 상문사, 능력개발사, 성안당=각 6종

▲삼화서적, 정법문화사, 웅진출판사, 천재교육사, 동아서적=각 5종

▲평화출판사, 한샘, 예지각, 박영사(양영각 포함)=각 4종

▲동보출판사, 청문각, 태림출판사, 진명출판사, 노벨문화사, 교문사, 하나출판사, 고려서적=각 3종

▲송산출판사, 연구사, 영재교육사, 세광음악출판사=각 2종

▲부민문화사, 계몽사, 세진출판사, 을유문화사, 학습개발사, 법문사, 탑출판사, 우일출판사, 현대음악출판사, 장원사, 동명사, 장왕교재연구원, 한서출판사=각 1종

## '출판대학'에 지망생 '홍수'

### 4월6일 개강...340명 몰려 경쟁률 2.8대 1

오는 4월6일 개강하는 出協부설 '출판대학'의 첫 수강생 모집에 정원의 약 3배나 되는 지망자가 몰려 관계자들은 즐거운 비명이다.

'엘리트 출판인을 위한 연수기관'을 표방하는 출판대학은 출협이 지난 16년간 운영해왔던 편집연수장(73~80년)·편집인대학(81~85)·출판인대학(86~88)을 상설 독립기관으로 분리, 규모를 확대한 것. 3월25일 마감된 수강생 모집(정원 120명)에 340명이 응모,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실무경력 1년 미만의 전문대 졸업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했음에도 지망자가 이렇듯 많

이 몰린 것은 지식산업의 첨단을 가는 출판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욕구가 전에 없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졸자들의 구직난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판대학의 교육과정은 종합과정(연2회)·실무과정(연3회)·특별과정(수시)·위탁교육과정(\*)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개강하는 것은 종합과정이다. 신인양성을 위한 코스인 종합과정은 4월~9월까지의 6개월 코스로 주간반 및 야간반으로 나뉜다.

출협은 출판대학의 운영을 위해 학계·언론계·출판계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 35명을

지난해 출판인대학에서 실습에 열중하는 수강생들. 이번 '출판대학'의 교과목도 실습 중심으로 짜여졌다.



강사진으로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 교과목은 출판개론·기획론·매스커뮤니케이션론·사진론·출판경영론 외에 문장작성·교정·출판디자인·출판광고·워드프로세서 등의 이론과 실습으로 짜여져 있다.

지망생들의 관심의 초점은 출판대학 이수

후의 '취업'문제. 출협은 회원 출판사들과 제휴, 수료생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지난 16년간 수료생(2천여명)들의 취업률이 90%에 이른다고 밝혔다.